



보험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간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최근 가계재무(Household Finance)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적 특징을 보험수요에 반영하는 가계보험(Household Insurance) 분야의 연구가 활발함. 가계보험의 핵심은 보험이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임. 가계보험 접근방법은 보험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첫째, 보험가입의 주된 요인은 현재의 재산 또는 소득수준이라는 점, 둘째, 빈곤층은 차입능력의 제한으로 보험시장 접근이 어렵고, 셋째, 보험은 저축처럼 예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함. 그리고 소득별 보험양극화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가계재무를 활용하여 가계의 관점에서 보험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계보험(Household Insurance)분야를 소개하고자 함¹⁾

- 가계재무는 가계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주택구입, 담보부 차입, 장기저축, 고위험에 대한 보장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분야로 이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에 대응하는 분야임²⁾
- 가계재무의 한 분야인 가계보험은 가계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의 특성을 논의함

■ 가계재무 관점에서 본 보험은 상태의존적 저축(State-contingent Saving)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을 상태의존적 저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의 특정 상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보험금을 수취하는 계약임
- 보험은 상태 간에 자금을 이전(Transfer across states)하는 계약으로 시간에 걸쳐 자금을 이전(Transfer across time)하는 수단인 저축과 구별될 수 있음
 - 예컨대 보험은 사망, 질병, 상해,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이전하는 수단임

1) 본고는 Rampini,A., Viswanathan,S.(2018)와 Kuka(2018)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2) 가계재무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소개로 Campbell, John.Y.(2003, 2006) 참조

- 이와 달리 저축 또는 차입은 현재와 미래 간의 소비흐름 교환으로 저축(차입)은 현재(미래) 자금을 미래(현재)로 이전하는 계약임

■ 보험을 상태의존적 저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계의 보험가입 행태 분석에서도 가계재무 접근방법은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차별적임

- 가계의 보험가입 행태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에는 정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전적 접근방법과 개인의 비합리성(Irrationality) 또는 정서적 반응을 강조하는 행동경제학적(Behavioral) 접근방법이 있음
- 고전적 접근방법은 보험가입의 장애요인으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된 정보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 역선택은 평균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 개인이 평균위험을 토대로 설정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됨
 - 도덕적 해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이후 가입이전에 비해 보다 위험한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현상을 말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은 가입자의 비합리적 낙관주의(Optimism)와 쌍곡선적 할인율(Hyperbolic Discounting) 적용이 과소보험(Underinsurance)³⁾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식함
- 낙관적인 개인은 본인이 필요한 수준보다 적은 보험을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음
 - 낙관주의란 자기 상황에 유리한 상태가 발생하면 동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나쁜 소식이 발생하면 한시적이라고 보는 개인의 성향임
- 쌍곡선적 할인율 접근방법을 따르면, 은퇴 이후에 종신연금가입을 희망하지만 은퇴 이전에는 연금가입을 원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 이는 쌍곡선적 할인율이 가까운 미래일수록 크지만 먼 미래일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임
 - 한편 표준모형에 적용되는 지수적 할인율(Exponential Discounting)은 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함

■ 가계보험 접근방법은 차입능력의 제약조건에 직면한 가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계별 보험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결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함

- 고전적 접근방법과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은 가계의 보험가입 행태-시점 간 소비, 저축, 보험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보험가입의 주요 결정요인인 재산 또는 저축의 동태적 관계 등 가계의 재무적 행태를 반영하지 못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은 가계별 보험양극화와 이로 인한 부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3) 과소보험은 계약자의 위험보장에 대한 필요한 수준(need)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과소보험 현상은 현실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함.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Zurich 보고서(2017) 참조

- 반면 가계보험 접근방법의 핵심은 보험은 금융제약(Financing Constraints)으로 인해 현재의 자산 또는 저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데 있음
 - 이는 자금차입-미래소득을 담보를 자금을 현재 차입하여 보험가입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이에 따르면 보험구매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원조달능력은 현재 자산 또는 저축 또는 실물자산 담보부 차입에 의해 결정됨

■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보험 접근방법은 불확실성 하에서 거시동학 모형을 활용하여 보험가입 행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 결과를 도출함⁴⁾

- 첫째, 보험가입은 (순)재산이 많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부유층은 보험가입을 늘려 부정적 소득 충격으로부터 미래 재산 상태를 보존할 수 있으며 미래 소비상태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다는 점임
 - 반면 현재 빈곤층은 보험가입능력이 취약하여 부정적 소득 충격으로부터 미래의 재산 상태를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보험시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Insurance)으로 인해 부정적 소득 충격으로 극히 낮은 소득수준에 직면한 가계가 미래소득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보험계약은 저축과 같이 예비적(Precautionary)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보험지출금액이 늘어나 현재 및 미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함

■ 위에서 제시한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증적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됨⁵⁾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또는 저연령층일수록 다양한 종류의 보험-건강보험, 사망보험, 장기요양보험, 수해보험의 가입이 적음
- 건강보험의 경우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가계는 25%,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하의 가계는 21%, 5만 달러~7만 5천 달러의 경우에는 15%, 7만 5천 달러 이상은 8%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음
 - 18~34세 이하의 26~28%, 35~64세의 14~18%, 65세 이상의 2%가 각각 건강보험 미가입자임
-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는 평균적으로 사망에 따른 순손실 금액의 10~40%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노년 부부는, 100% 보험에 가입함(Krebs et al. 2015)
- 장기요양 보험(60세 이상)의 경우 부의 1분위(하위 25%)에 속하는 가입률은 약 3%, 2분위, 3분위, 4분위에 속하는 계층은 각각 6%, 11%, 20%의 가입률을 보임(Brown et al. 2007)
- 연금보험의 경우 은퇴가구의 연금가입률은 금융자산이 높을수록 높은 편임(Inkermann et al. 2011)

4) Rampini,A., Viswanathan,S.(2018) 참고

5) 미국 “Census Bureau’s Report on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17” 참조

- 부의 하위 5%에 속하는 가구의 연금가입률은 1%인 반면 상위 5%에 해당하는 가구의 연금가입률은 20% 수준임
 - 수해보험(Flood Insurance)의 경우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수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함(Browne et al. 2000)
- 또한 가계의 보험가입률이 소득수준과 금융제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는 미국 가계의 보험가입행태와 인도 농가의 사례 연구도 뒷받침하고 있음
- 보험가입률이 금융제약이 극심할수록 낮다는 사실은 젊은층의 가구가 중장년층에 비해 금융제약을 받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Bludell et al. 2008)
 - 대출자인 고소득 은퇴가구는 일시적인 충격(Transitory Shocks)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보장을, 지속적인 충격(Permanent Shocks)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함
 - 반면 빈곤층은 일시적 충격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사실은 빈곤층에 비해 부유층의 보험가입률이 높다는 이론적인 결과를 입증해주는 것임
 - 인도 농가의 수해보험 가입률은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높지만 금융차입에 애로가 클수록 낮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음(Gine et al. 2008)
 -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의 결과에 따르면, 우연한 소득상승을 경험한 농가가 수해보험 구매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부족이 보험 구매의 주된 장애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줌(Cole et al. 2013)
 - 또한 보험계약을 구매할 자금부족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주된 요인이라고 규명함
- 이와 더불어 가계보험 접근방법은 소득변화가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규명함(Fang and Kung 2012)
-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건강상태, 이혼, 소득충격 등이 있음
 - Fang and Kung(2012)은 이러한 변수 중에서 소득변화가 보험가입 여부 및 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소득이 높을수록 생명보험을 구매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줌
- 위에서 제시한 계층별 보험가입격차에 따른 부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의 혜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⁶⁾
- 실업보험은 미국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실직자에게 실업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임

6) Kuka(2018)

- 실업발생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를 위해서는 급부금을 확대하여 실업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지금까지 논의한 비를 요약하면, 가계보험 접근방법은 보험양극화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현상은 첫째,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현재의 재산 또는 소득수준이라는 점, 둘째, 빈곤층은 차입능력의 제한으로 보험시장 접근이 어렵고, 셋째, 보험은 저축처럼 예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함
 - 미래 소득은 높으나 현재 소득이 낮은 가계는 차입제한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워 미래소득에 대한 부정적 충격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음
 - 반면 차입제한을 받지 않는 부유층은 보험가입으로 미래소득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할 수 있음 **kiri**

참고문헌



- Blundell. R., Pistaferri. L., Preston. I.(2008), "Consumption inequality and partial insur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 pp. 1887~1921
- Brown. J., Finkelstein. A.(2008), "Why is the market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o small?", *American Economic Review* 98, pp. 1083~1102
- Campbell, John. Y.(2006), "Household finance", NBER Working Paper 12149
- Campbell. J., Cocco. J.(2003), "Household risk management and optimal mortgage choi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pp. 1449~1494
- Castaneda. A., Diaz-Gimenez. J., Rios-Rull. J.-V.(2003), "Accounting for the U.S earnings and wealth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 pp. 818~857
- Fang. H., Kung. E.(2012), "Why do life insurance policyholders lapse? The roles of income, health and bequest motive shock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Duke University
- Fuster. A., Willen. P.(2011), "Insuring consumption using income-linked assets", *Review of Finance* 15, pp. 835~873
- Inkmann. J., Lopes. P., Michaelides. A.(2011), "How deep is the annuity market participation Puzzl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 pp. 273~319
- Krebs. T., Kuhn. M., Wright. M.(2015), "Human capital risk, contract enforcement, and the macro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 pp. 3223~3272
- Kuka Elira(2018. 6), "Quantifying the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Unemployment and Health", NBER Working Paper No.24766
- Liabson, David(1997), "Golden Eggs and Hypebolic Discount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XII(2), pp. 443~477

Rampini. A., Viswanathan. S.(2018. 4), "Financing Insurance", CEPR DP12855

Zurich Report(2017), "Avoiding Underinsurance", *A Guide for businesses and their insurance partners*